

-----  
**전체 주제: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하나님**

메시지 12

야곱의 하나님

(2)

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다루시는 성령의 징계

성경: 창25:22-26상, 31:38-41, 32:22-32, 47:9, 48:15-16상

**I.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았다.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본다—창 25:22-23, 롬9:11.**

- A. 야곱과같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, 심지어 창세 전에 택함받았다—엡1:4, 살후2:13, 요 15:16상.
- B.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린 것이다—롬9:11-13, 16.
- C.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의지하고,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,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—엡1:4-5, 빌2:13, 히13:20-21.
  - 1. 우리의 하나님은 확신 있는 하나님이다.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실 것이다.
  - 2.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고 계시는 바를 아신다. 그분은 지혜와 은혜와 인내가 충만하시며,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마치실 것이다—빌1:6, 고전1:8.
  - 3.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확실함에 있고, 우리의 유용성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—엡 1:12, 유24-25.

**II.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표하는 삶이며, 야곱의 하나님은 다루심의 하나님이시다—창31:38-41.**

- A. ‘야곱의 하나님’이라는 칭호는 성령께서 야곱을 징계하시고, 그의 타고난 생명을 다루시어 그리스도로 조성하시고 그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내포한다—갈5:22-23, 히 12:11.
- B.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면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다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조성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.

**III. 야곱의 역사(歷史)는 성령의 징계의 그림이다—창47:9, 48:15-16상, 히12:9-11.**

- A.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—옛 요소를 부수고 새 요소로 우리를 조성함—을 해 오셨다—고후4:16.
- B. 성령의 징계란 성령께서 우리의 바깥 환경에서 행하시는 것, 우리가 징계받도록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과 모든 사건들을 안배하시는 것을 말한다—롬8:28.
  - 1.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—고전2:14, 요12:25.

2. 성령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창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어 새 창조의 요소가 우리 안에 건축될 수 있게 하신다.
  3. 하나님께서는 바깥 환경을 안배하시지만, 성령께서는 이러한 안배를 내적인 것으로 바꾸시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. 이렇게 바깥의 사건들을 내적인 체험으로 변환하는 것이 성령의 징계이다.
  4.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성령의 징계를 통해 처리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다—갈4:19, 엡3:17상.
- C. 성령의 징계와 조성은 하나의 역사이다.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통해 조성된다—히12:9-11, 엡3:17상.

**IV.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셔야 한다는 것,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격렬한 방식으로 만지심으로 깨뜨리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—창32:22-32.**

- A.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징계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의 타고난 생명을 다루셨다—고전2:14.
- B. 타고난 조성은 사람의 재능, 재간, 피, 지혜, 영리함과 관계된 옛 사람을 살아내는 표현이다.
1.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난 생명에서 유래한 것이며,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—요12:25, 11:25, 빌3:10-11.
  2.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다름받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모든 재능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됨으로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고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—고후1:9, 4:14.
  3. 우리의 타고난 조성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이다—창24:22-26상.
    - a. 야곱이 교묘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조성에 있어서 강했기 때문이다.
    - b.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—25:29-33.
    - c. 성령의 징계를 통해 야곱은 타고난 데서 구출되어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—히11:21.
- C. 주님은 야곱이 얼마나 천연적이며 그의 타고난 힘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시기 위해 야곱과 씨름하셨다—창32:24.
- D.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후, 겉으로는 전과 같았으나 속으로는 그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았다—33:1-4.
1. 주님이 만지신 것은 그의 외적인 생활이 아니었다. 그분이 만지신 것은 그의 내적인, 타고난 힘이였다—32:32하.
  2. 주님이 어떤 결정적인 지점에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절게 되고 우리의 속 존재에 있어서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—25절.
    - a. 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았다는 표시이다.
    - b. 절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에 의해 살지 않고,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,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—갈2:20, 고후1:9.
- E. 하나님께서 성령의 징계를 통해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처리하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려는 것이다—갈4:19, 엡3:16-21.